

CERIK 開院 20주년 기념 설문조사 : 건설업 CEO에게 묻는다

조사 설계

한 국건설산업연구원은 지난 5년간 건설산업의 주요 이슈와 기업 경영 방향에 어떠한 변화가 있는지를 살펴보고 지금의 건설 현안과 미래 건설업 성장 동력 등에 대한 건설업 CEO들의 고충과 비전을 파악함으로써 건설 환경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전략 수립 방안에 일조하기 위하여 시공능력순위 1~500위의 종합건설업체 CEO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은 ① 건설 CEO의 경영 스타일, ② 현재 건설산업의 주요 이슈, ③ 건설시장 현황 및 향후 전망, ④ 해외건설시장 현황 및 과제 그리고 ⑤ 박근혜 대통령의 '통일 대박론' 이후 더욱 부각되고 있는 북한 건설시장 관련 이슈로 구성하였다.

설문의 대상이 된 500개 건설업체 CEO들 중 응답한 CEO는 총 67명(회수율 13.4%)으로 당초 예상보다 응답률이 다소 낮았다. 이러한 현상은 최근 수년간 지속된 건설업계의

불황과 담합 등에 따른 상황 악화로 건설 CEO들의 경영활동에 애로가 많기 때문인 것으로 사료된다. 분석 결과에 앞서 응답자(기업)들의 특성을 간단히 살펴보면, 먼저 시공능력 순위로는 1~100위가 26.9%(18명), 101~200위 25.4%(17명), 201~300위 17.9%(12명), 그리고 300위 초과가 29.9%(20명)로 비교적 각 순위대별로 응답 CEO들이 고르게 분포되어 기업 규모별 상황이 적절히 반영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응답 CEO들의 연령별 분포를 보면 50~59세가 47.8%(32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는 60세 이상이 35.8%(24명)을 차지하였다.

회사와의 관계를 보면, 창업 경영인이 35.8%(24명)로 가장 많으며, 다음으로는 자체 승진 26.9%(18명), 2,3세 경영인 22.4%(15명), 외부 영입 경영인 14.9%(10명)으로 2,3세를 포함한 오너가 58.2%로 과반수를 조금 넘었다.

〈표〉 응답 CEO 현황

구 분		사례 수	%	구 분		사례 수	%
전 체		(67)	100.0	전 체		(67)	100.0
연 령	49세 이하	(11)	16.4	시공능력 평가액 순위	1~100위	(18)	26.9
	50~59세	(32)	47.8		101~200위	(17)	25.4
	60세 이상	(24)	35.8		201~300위	(12)	17.9
회사의 관계	창업 경영인	(24)	35.8		300순위 초과	(20)	29.9
	2, 3세 경영인	(15)	22.4	기업 소재지	수도권	(25)	37.3
	외부 영입 경영인	(10)	14.9		충청권	(13)	19.4
	자체 승진 경영인	(18)	26.9		강원권	(0)	0.0
					호남권	(11)	16.4
					영남권	(18)	26.9